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社說

獨逸植民地返還要求
歐洲不安의增大

一

八日 뉴른베룩 第八回나치스黨大會에서 나치스·발렌支部長 바그랄氏는 히틀러總統의 宣言를 代讀하야 獨逸 新經濟四個年計畫을 發表하는 同時에 舊植民地返還要求를 闡明하야 맛 僞勢力의 無軌道的 進出과 西班牙의 動亂等等 諸事實로 不安恐怖에 戰慄하고잇는 歐洲를 또다시 瞠目케 하엿다 獨逸의 植民地返還要求는 나치스黨綱領의 重要項目의하나로 明示되여잇는것으로 보든지 또는 從來 機會잇슬때마다 言外에 屢屢히 이를表示하엿든것으로 보아 別로 怪異하게 역일것이 업스나 다만 獨伊兩國을 中心으로한 所謂 國際파시스트勢力과 英、佛、蘇 小協商國을 一聯으로한 聯盟國과의 合縱連衡이 수相激烈하고 그對立이 尖銳化한 今日에 突然 爆彈宣言을 發하게되것은 極히 注目되는일이다.

二

바그랄氏의 말을 빈다면 히틀러執政後 過去 四個年間 나치스가 遂行한 業績은『大戰後 獨逸의 發展을 拘束한 모든桎梏을 打破하는 工作』으로 要約할수잇다. 첫재로 獨逸은 베르사이유條約 軍事條項을 一方的으로 破棄하기에 成功하야 再軍備를 實施하엿고 둘재로 로카르노條約을 同一한 方法으로 破棄하야 從來 再武裝을 禁制하엿든 라인란드에 國軍의 進駐를 斷行하엿고 셋재로 最近에는 蘇聯의 增兵方法을 模倣하야 兵役年限을 延長하엿다. 이와가티 過去四個年間『第三帝國』建設途上에 노힌 障碍物을 除去하기에 成功한 獨逸은 그 必須的結果로 必要以上의 彪大한 軍備를 整備하게되엿스니 여기서 國家的膨脹의 出口를 要求할것은 必然的 歸趨인 同時에 列國에 比하야 조곰도 遜色이 업는 現代的 武器를 練한 獨逸이 舊植民地의 返還을 意圖하는것도 無理가 아닐것이다.

三

獨逸은 大戰 結果로 總面積 一一七、二五一平方哩 人口六、四九五、五八二人에 達하는 領土를 聯合國諸國에 割讓하엿다. 即 알사스·로렌을 佛國에、所謂 廻廊地帶를 波蘭에、실레시아의 一部를 체코슬로바키아에、메멜地方을 리트와니아에、그리고 阿弗利加에在한 彪大한 植民地를 英佛兩國의 委任統治地域으로 喪失하엿다 其中 카메룬 항가니카一部는 英國의 委任統治下에잇고 토고地方의 一部도 英國 委任統治下에잇고 前記三地方을 合計한 約半部가 佛國의 委任統治下에잇다 그럼으로 今回의 宣言은 獨逸의 再軍備宣言이나 또는 로카르노條約破棄와는 其實方法上 重大한 差異를 發見할수잇다 前者에잇서서는 締約國의 旣得權益은 直接 侵害치아넛스나 後者의 要求를 貫徹하려면 直接 旣得權益을 侵害하게됨으로 그結果에잇서 重大事態를 誘致하게될것이다.

四

今回의 宣言을 發表하게된것 [illegible] 獨逸의 [illegible]가 膨脹發展의 要求에서만 나온것이다 獨逸은 現在 自國의 人口를 扶養하고 [illegible] 이 缺乏되어잇다 또는 人口에 잇서서도 日本에다음가는 高度의 [illegible] 를 [illegible] 하는것은 [illegible] 그러나 이를 打開키 爲하야 이를 非合法的 手段에 訴하면 [illegible] 바그랄氏自身의 말에 依하면 [illegible] 過까지 [illegible] 하엿다 [illegible] 오직 [illegible] 그것뿐이다。

나치스首腦部連日 蘇聯打倒策密議
反幹部테로에關聯한나치스陰謀暴露로
莫府大使館도撤收?

獨蘇關係險惡化

히틀러總統　스탈린氏

【伯林十日發同盟】蘇聯政府가 反幹部派의 테로陰謀에 關聯하야 獨逸政府乃至나치스黨機關의 策謀를 暴露한以來 獨蘇兩國關係는 자못 險調를띄게되엇는데 나치스黨大會를 機會로 히틀러總統을 爲始하야 괴벨스宣傳相、로젠베룩黨外交部長 等은 連日猶太人과 蘇聯政府打倒策을 協議하고잇기때문에 兩國政府에는 一段緊迫을 告하게되엇다 伯林外交界에서는 獨逸政府首腦部가 볼쉐비키打倒의 旗色을 鮮明히하는以上 今後蘇聯政府와 正常外交關係를 維持할方針인지 疑問이라고看做하고莫斯科駐剳大使館의 撤收도 不辭한다는意向이아닌가보고잇다

볼쉐비즘威脅과 猶太禍强調毒舌
第八回나치스黨大會第三日
로젠베룩氏演說內容

【뉴른베룩十日發同盟】第八回나치스黨大會第三日은 十日午後七時半 開會하고 席上에서 黨外交部長 로젠베룩博士와 宣傳相 괴벨스氏는 차래로 起立하야 볼쉐비즘에對한 宣戰布告로 滿場을 뒤흔케하엿는데 特히 로젠베룩黨外交部長은 볼쉐비즘의脅威와 猶太禍를 强調하야 特殊한 毒舌을 吐하엿다 가로되 倫敦、巴里、마드리드、廣東等의 世界大都市는 方今 社會苦에 呻吟하는 男女로 充滿하고 殘忍한 볼쉐비즘의 犧牲이되어잇다 이에 一九三六年第八回나치스黨大會는 再次 볼쉐비즘의 脅威와 猶太禍에 對하야 果敢한 爭鬪를 開始치안흘수업고 蘇聯邦은 猶太人에 依하야 支配되고 彼等은 그 政治 產業의 全部를 壟斷하야 全世界의 住民에 一大脅威를 構成하게되엿다 볼쉐비즘은 軍國主義에 反對하고 世界平和를 念願한다고 自稱하면서도 西歐羅巴에서 볼쉐비즘 猶太人의 指導下에 國防을强化하고 [illegible] 强大케하야 兵力의 增大를 企圖中이다 그런데 佛國政府와 蘇聯兩國은 蘇聯과 체코兩國間에 軍事同盟이 잇는것을 想到하라 方今 蘇聯赤軍은 全世界猶太化의旗

◇蘇聯航空界의巨星 — 飛行機操縱에잇서서 世界一이란 稱이잇고 [illegible] 能力이 佛國의 卄五倍라고까지 傳하야 蘇聯航空界의 權威者인 可羅莫巴가 잇거니와 今夏에도 莫斯科 니코라이에프스크間九、三七四粁의 長距離飛行을 計畫하야 世界新記錄을 作成하엿다。寫眞은 同長距離飛行에서 六十五時間이란 記錄을 樹立한 蘇聯飛行家 크칼로프氏。

誠意를不表示하면 斷乎實力으로膺懲
海軍當局의態度强硬

【東京電話同盟】北海事件現地調查를爲한 戶根木外務書記一行의 調査員을 便乘케한 軍艦嵯峨는 十二日早朝 北海에 到着할 豫定인데 同地에는 十九路軍이 蟠居하야 現地調査에 際하야 妨害를 加할念慮가 만히잇스므로 萬一 如斯한 不法行爲를 敢行할境遇에는 斷乎 實力을 行使하는것도不得已하다고한다 그래서 及川第三艦隊司令長官으로부터『萬若不幸한 事態가 發生할 境遇에는 權益擁護를爲하야 第十戰隊所屬球磨及 第五水雷戰隊、芙蓉、朝顔、刈萱을 靑島로부터 南下케하겟다』는 意報告에 接한 海軍中央部에서는 今後 發生할는지도 모르는 新事態에 備하야 萬端의 準備를 整頓하야 十一日夜來 자못 緊張의 빗을보이고잇다 또 海軍中央部에서는 거듭되는 不祥事件에 對하야 南京政府의 猛省을 促하고 萬一 이要求를 全面的으로 否認하고 排日抗日의 根絶에 힘쓰지안코 誠意를 披瀝치안는데잇서서는 實力으로서 斷乎 解決할수밧게업시되리라는 强硬態度를 가지고잇다 前述한바와가티 戶根木書記生等 調査員의 任務遂行은 자못 困難한 狀態에잇서 事態의 推移는 極히 重大되고잇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十一日의 定例閣議는 寺內陸相以下 七閣僚가 館山의 艦隊의 戰技演習見學으로부터 歸東할을기다려 午後二時부터 首相官邸에서 開催하고 數日來 病靜養中인 有田外相도 出席하야 事務的事項을 決定한後 有田外相으로부터 成都事件 그後의 經過報告에잇서 새로勃發한 北海事件을中心으로한 中國의 排日運動現況等에 關하야 說明하얏다

十九路軍駐屯으로 現地調査困難

【上海十一日發同盟】中國側에達한 確報에 依하면 北海事件의 元兇인 第十九路軍의 翁照垣軍은 蔣介石氏의 撤退要求를 無視하고 十一日도 北海方面에駐屯하고 盛히 反日氣勢를 올리고잇다 調査隊가 將來한 軍艦嵯峨는 今夕北海에 到着할 豫定이나 現地의 狀況이 [illegible]

蔣氏余漢謀氏에 十九路軍撤收準備命令

【廣東十一日發同盟】蔣介石氏는 十一日午後 廣西綏靖主任余漢謀氏에게 對하야 近近三個師로써 南道方面의 十九路軍出動地域의 撤收準備를 命令하엿다 右는 十九路軍이 蔣介石氏의命을 拒絶하고 撤退할 模樣이 업슬뿐아니라 翁照垣氏가 十日以來 北海分浦一帶에 戒嚴令을 施行하고 益益侵入하야 治安을 攪亂하는者는 누구라도 이를 擊殺한다고 揚言하고잇스므로 不得已 武力으로써 十九路軍을 掃蕩할 決意를 한것이라고 解釋된다

十九路軍師長이 北海一帶에戒嚴令

【上海十一日發同盟】中國側에達한 情報에 依하면 北海에잇는 第十九路軍師長 翁照垣氏는 十日 同地一帶에 戒嚴令을 宣布하엿다고한다 다시 蔣介石氏는 [illegible] 氏를 招致하야 報告를 聽取하고 거듭 李宗仁、白崇禧兩氏에게 對하야 同部隊의 撤退를 命令하야 [illegible] 氏外一名은 蔣介石氏의 親書를 가지고 廣東으로 出發하엿다

米海軍高官級은 巨砲主義에反對
스완슨長官과正反對

【華盛頓十日發同盟】米國海軍長官스완슨氏는 九日 新聞記者團과의 初會見에서 主力艦建造方針을 明示하고 日本政府에 對抗하야 口徑十八吋乃至二十吋의 巨砲를 裝備하는것을 不辭한다고 言明하엿다 그러나 米國海軍部內의 意見은 반드시 一致되어잇는것은 아니나 [illegible] 그理由는 如左 一、但 巨砲口徑을 增大하면 砲彈도 크게되고 艦體被害程度도 增大할것은 勿論이나 有效彈은 比較的 減少되므로 十八吋 乃至 二十吋의 巨砲를 搭載하는것은 事實上 不利하고 困難할것이다 結局 主力艦의 備砲口徑의 最大限度는 十六吋에落着될것이다

人事異動에關한 大野政務總監談

南總督着任以來의 第一次 人事異動으로 總督府部內는 異常한 沈默에 싸여 局課長級間의 不安의空氣는 [illegible] 는데 十一日 大野政務總監은 今後의 人事異動에 關하야 如左히 말하엿다
人事異動에 關해서는 總督과 내가 着任當時에 말한것과조곰도 方針에 變함이업다 지금이라도 必要以上의 異動을 할생각은업고 官吏로서 自己의 職務에 忠實하는것이 第一의 實務이며 自己의 現在의職에 疑惑을 가진다는것은 안될말로서 不安을 抱懷하고 그것을 外部에 漏洩하는것은 官吏의 心得으로 甚히 遺憾千萬이다 但自進 辭任한다거나 或 更迭치안흐면안될 必要가잇스면 異動도 不得已할것이다

에스카레터條項 日本은不必要視
米國은同條項援用主張

【東京電話同盟】英國의 에스카레터條項適用에 依한 驅逐艦增量에 對하야 日本이 驅逐艦不足分을 潛水艦으로써 補充한다는 通信에 對하야 米國政府는 右에 依하면 驅逐艦六萬七千噸 潛水艦五萬二千七百噸의 때리리 原則이 破壞된다고 十一日 東京駐在米大使를 通하야 日本政府에 對하야 日本政府는 發意國(英國)이明示한 同一艦種을 保有하여야 할것인데 潛水艦의 不足을 補充하려고하는바 이에는 此際에 다시 潛水艦增强이 四國의 情勢에 依한것이란 旨를 明示하고 에스카레터條項을 發意하야 右保有量을 獲得하엿스면한다고 非公式通牒을 보내엇다 이에 對하야 外務省은 海軍省과 協議中인데 政府의 見解를 綜合하건대
一、日本潛水艦噸數는 對米七割弱의 驅逐艦의 不足分 一萬五千噸保有量 認定바든것인데 元來 에스카레터-條項은 倫敦條約締約國日英米가 第三國의 脅威에 依하야 그一國이 對抗的으로 增量하는境遇에 他의締約國도 自然 均衡을爲하야 比例的으로 增量할 權利가잇스므로日本의 驅逐艦不足分을 今年末 廢棄할 潛水艦에 求한것이다
一、倫敦條約은 數個月로서 失效함에當하야 驅逐艦의 不足分을 새로 建造하는것은 軍縮의精神에 어긴다
一、日本은 潛水艦保有量 以上과가티 解決함으로서 決코에스카레터條項을 發意하는것이 아니오 또 發意할必要도업다
一、日本의通告는 英國의그것에對應한 一方的通告라고 思惟함으로써 이에 對하야 云云할性質의것이 아니오 또條約規定에 依한 當然한 結果이므로 違反이아니다 따라서 本件을 交涉議題에 供하야協議決定에 맛길必要가업다
는 見解를가지고 近近右趣旨에 基한態度的回答을 發할것으로期待된다

리-르罷業 益益險惡化

【리-르十日發同盟】리-르市를 中心으로한 纖維工業의 罷業은 그後 益益 惡化의 徵兆가 잇서 罷業團側은 工場을 占領하고 屋上노피 赤旗를 달고 氣勢를올리고잇다 一方 企業主側은 九日부터 工場에의 [illegible] 을 中止하고 罷業團을 驅逐하는 方 工場으로부터 撤退치안는다고 限 一切 交涉에 應치안는다고 罷業團側의 要求撤回를 一蹴하엿다 [illegible] 이 [illegible] 에서는 지금 [illegible] 中임으로 [illegible] 수업다

讓渡交涉決裂로 古都砲擊開始!
산·세바스챤市는어데로?

【산·세바스챤十一日發同盟】西班牙叛軍은 古都산·세바스챤의 都門에 肉迫하면서 市內의當局 伽藍이 砲火에 歸함을 念慮하고 政府軍에 無條件降伏을 勸告하엿스나 交涉은 前後數日後마츰내 決裂에 歸하엿다 叛軍은 去四十八時間 事實上休戰하야 政府軍의 反省을 要請하고잇던바 十日夜에 至하야 交涉은 마츰내 決裂하게 되는同時에 再次野砲의砲列을 古都의 砲擊을 開始하야 北部戰線의 決戰을 開始하엿다

佛一高官 休戰을提議

【파리十一日發同盟】西班牙內亂이 深刻化함에따라 佛國의某高官中인데 十日의 떼크리타오드·나파리紙는 佛國外務省 一高官이 西班牙政府軍、叛軍의 双方에 對하야 非公式으로 休戰提議를 하엿다고 報道하야 注目을 끌고잇다 休戰協議의 內容이라고 傳하는바는 如左하다
一、兩軍은 十五日間 休戰을 締結할것
一、이동안 有力 双方의 感情融和를 圖하고 現行西班牙憲法改訂 其他의 手段에 依하야 强力政權의 確立을 圖할것
右提議에 對하야 西班牙政府側은 應諾의 回答을 與하엿스나 叛軍首腦部는『祖國民을 殺戮하기까지 講和의 餘地가업다』는 斷乎 一蹴하엿다고 한다

勅令案決定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十一日의 閣議에서 左記勅令案을 決定하야 곳 上奏하야 樞密院御諮詢奏請手續을 取하엿다 右는 政府가 可及的 速히 實施를 希望하고잇스므로 아마 十六日의 定例本會議에 上程하게될것이다
一、關東局官制中改正件
一、臺灣總督府官制中改正件 (同上)
一、臺灣總督府地方官官制中改正件(米穀自治管理法實施에 伴하는것)

臺灣第一期米實收高 四百七十餘萬石
比前期四十一萬石增加

【台北電話同盟】台灣總督府發表 昭和十一年第一期米實收高는 四百七十三萬八千五百十一石으로前年同期의 實收高에 比하야 四十一萬三百十八石의 增加이다

푸라그·莫府間 航空路開設
軍事的重要性極注目

【東京電話同盟】벨리너타게블라트紙의 報道로 十日武者小路駐獨大使로부터 外務省에入한 公電에依하면 最近莫斯科와 체코首都프라그間의 新航空路가 開設되엿다하는바 同航空路는 波蘭을避하야 루마니아 프라그에 至하는 小協商諸國을 連鎖하는것이다 이것은 佛、체、蘇三國間의 軍事協定에基하야 開設된것으로 蘇聯의極東又는 中南歐細亞航空經營과 併行하야 其軍事的意義는 자못注目되여잇다

陸軍側獨自的 勞働委員會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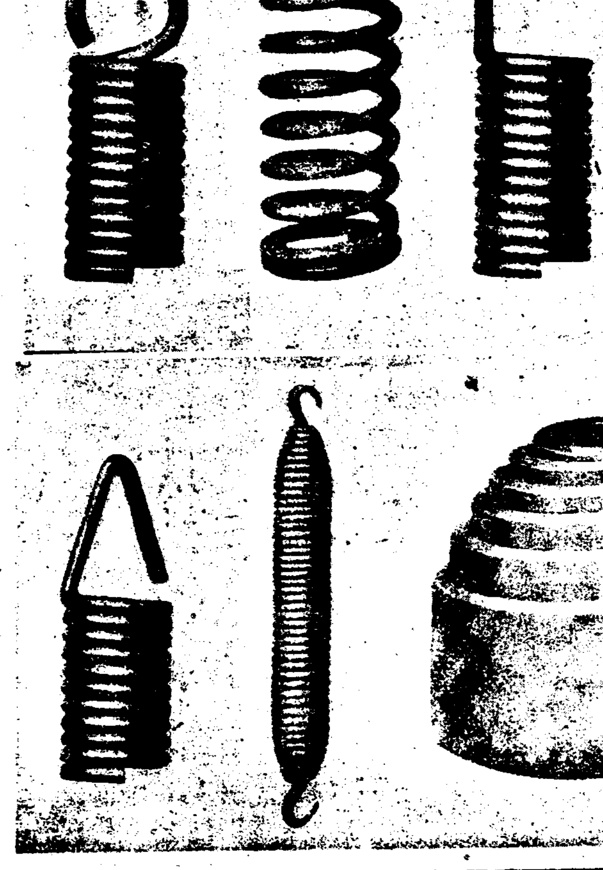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 各地工廠職工으로 結成된 官業勞働組合中大阪、小倉等日本勞働組合會議에 加入하여잇는者에 對하야는 十日各工廠長을 通하야 脫退를慫慂하자 職工이 自發的으로 組合脫退를 決意한것을當局으로서 滿足하는바이나 이問題는 勞務問題로서 생각될뿐아니라 全陸軍에 對한軍需工作의 徹底를 圖함을目標하고永持造兵廠長官이 着手한것을 陸軍中央部으로서는 이趣旨를是認하고잇다 그러나 陸軍으로서도職工에 對한 待遇其他에 對하야無理解한 態度를取하는것이아니고 近近陸軍省山脇局長을 委員長으로 各關係局課及造兵廠 各工廠等의職員을 委員으로 勞働委員會를組織하기로 決定하엿다 이委員會에서 年限制의確立、共濟組合機構運用의對策、購買、徒弟、學校、保姆等의 現在잇는機構도强化하야 福利施設의增進、職工、職員等의意思의 疏通을圖하기爲하야 講習會를 開할意向이다

夕刊後市況 十一日

◆大阪 期米◆
大新 六八七〇 (四〇高)
鐘新 一七五四〇 (一〇〇高)
日產 八一七〇 (一〇〇低)
東新 一二八〇〇 (一七〇高)
◆橫濱 生系◆ 後引
當限 七一〇〇 先限 七一〇〇
◆京井 人絹◆ 後引
當限 六二三〇 先限 五九四〇

(舊京城스프링グ改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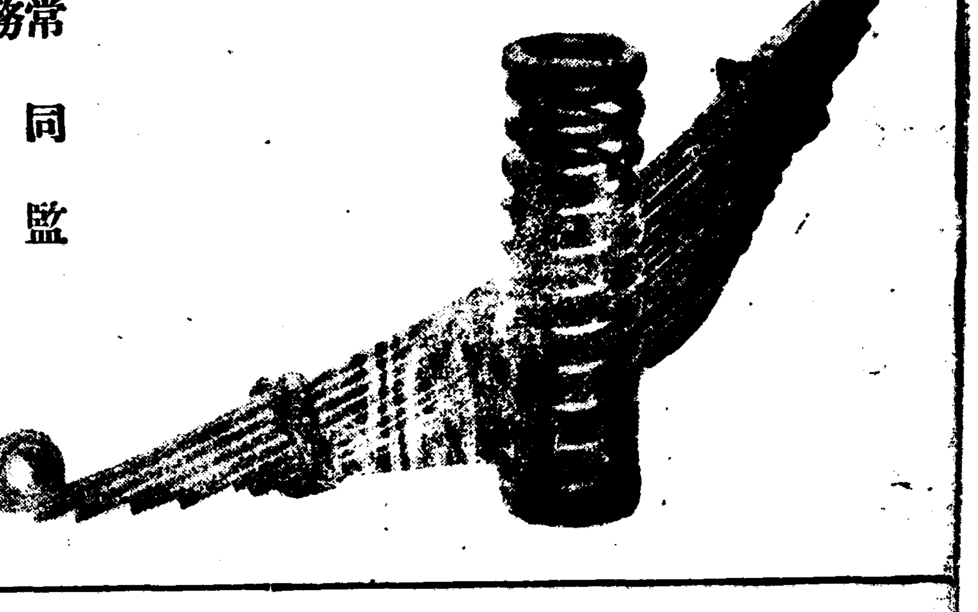
東洋工業株式會社



營業種目
一、スプリング(용수철)部
自動車用 鑛山機用
釀造機用 印刷機用
製叺機用 製繩機用
其他一般機械用
スプリング製作販賣
一、鋼鐵部
各種鋼鐵、鋼線
直輸入販賣

社長 徐丙昊
常務取締役 廉台振
同 任昇準
監査役 姜佐休

京城府中林町二三九番地
電話本局(2)三四四四番
振替京城二二〇一八番



九仞一簣압두고 無頭峰上暴風雨夜

明日의 天候回復을 一夜祈願

⑳ 快哉! 雲捲青天!

李相昊記

무두봉(無頭峰)의 하룻밤 이가슴조리는 하룻밤 이엿다。두만강(豆滿江)의 최고원두를 엽호로끼고 비탈진곳에 지리를잡아천막을 둘러첫다。

내일하로는 이번거름에잇서서 가장귀중한 하루다。한달을두고 이거름을 궁리한것도 내일하로를위한것이요 사흘동안육두고허덕이고올라온것도 내일하로를맛자함이다。내일은 구천오십오척절정을 다하야 천지(天池)의령그러운 얼굴을 대하는날。백두산에서 천지를업새다면 면류관속의 임금이나 다름이업슬것이다。천지가잇스매 백두산을 이르게되는것이요 장하다、귀하다、크다、놉다、는백두산은 오로지 천지의덕으로써 이다。구름안개만끼어도 못보는천지。비가만끼여도 차즐길업는천지。비가온다면 더구다나。바람까지 인다면 어찌할고。열번올라가 한번보기어려운 그천지를 무슨복으로 온전히 볼고。

○…○

아닐까。저녁때부터난데업는바람이일드니 그바람뒤미처 비를몰라온다。빗방울이굵어지고 바람은급해진다。밤이들엇다。천막속의얼굴과 얼굴들은 정황업시어이업시 마조처다보고만잇슬뿐이다。

○…○

낫까지조흔일기가 하필이렇지녀부터! 하지마는 무두봉우로는 그언제든지이렇응화적한나는 말도못해보고。밤이기퍼 갈수록비는홀홀이를 업드린는듯이솟는다。바람은 또지동치듯。내일일은다라나고 오늘밤일이 걱정이구나。비는 천막베를 뚤코드려오고 바람은 누은자리를통채로떠날릴 거조를부린다。천막이날려가고 비에 떠내려갈판이라도 그비를 날개마저가며 저나무둥치를빗슬고 이밤을 새울터이오니 부대 오늘밤만떠보고 새는아침에는 개여줍시사。조상올려라보고 고장을팔세하고 가든거래를 푸대접혜온 못난이들의 불측한정성을 바로보시지말고 천평천리가튼도량으로 다늘려보사 새는날에는 비바람을거드시고 거룩한 천지의얼굴을 우러뵈옵는 은총을 내리옵시사。하고 축원의 하롯밤을새웟다。

○…○

새벽이되엿다。비는 그냥이요 바람도제려이다。할수업구나。백변을두고보아 너이들이 너이들마음이커서 나를차저본적이 잇는가。너이들끼리짜고 너이들끼리 궁리를하야 이산봉을두다려 보채이잇든가。이산을소중히녀여 이산을차저봐야만된다고 이렁석거리고 통문을돌리고 서로계울질을한적이잇든가。머리가노리고 눈이푸른「엄마우자」들도 벌서오륙십년전부터 이곳을 차저다니거든。누구의피를바덧고 누구의살과뼈를바닷고 어느땅의우로를 먹고자란 너희들이거매。벌써잣는 그동안지나를고 돌맹는산이나차고 뛰어드려오면 그만일줄아느냐。줄덩해보렴으나。

바람소리 비소리속에는 이런소리가석겨오는듯도햇다。

○…○

팔월지사일 오전여섯시방내리퍼붓든비는 겨우멈첫다。동천은 훤하게터진다。무더기구름은 비슬비슬흐러지며 군데군데 구멍이뚤려진다。정동기(正東)쪽보다 멋배나더빠른 회구름이는 모라치는 서북에서 동으로 거바로후리는날을씨치며 동으로 동으로흘러나간다。망망한 천평하늘을 련병장으로잡고 회구름을 결은구름 노랑구름 자주빗구름은 때때이얼런부터 대붕열식이 버러진다。송엉송엉터러진 구멍으로부터는 땅바다이라도 뚤코드려갈듯한 햇볕이 어마어마한 방사선(放射線)을 그리며 내려비친다。이것이 해발칠천척무두봉우에 날개이는 장관이다。

그러면그러치。설마 그토록외면이야할라고。바람은그대로남엇스나 비는통채로 가버렷다。분복에넘을듯한 청명한날이다。하늘문이열렷다。지체말고떠나장 시각이 바뿌거든。

그러나 지동치듯 부는바람은 비못지안케 눈코를 못뜨도록한다。일행은 떠낫다。비가 멈추는것만도 감사한대 바람까지업두록 무슨염치로 바랄것고。

(사진은 무두봉에서 내려다보이는 아득한 천평의숲)

本社에寄托한救濟品 水害地에續續發送

約六萬點을二百八十個로荷造

그러나아직도九牛의一毛

전고미증유의 대풍수해로 령남(嶺南)과 강원도(江原道)지방동지의수란일과후의 정경은 실로목불인견의 참상을 나타내고잇서 지금까지 판명된 피해는 인명사상이 칠천여명이요 전답도로 가옥과 가장즙물등의 피해는 일억오천만원으로 계산되고잇다 헐버슨몸으로 의지할곳업는 황야에서 소리업시 엄습하는추위와 주림에 떨고잇는백만리재민 이들을 구하자는소리를 한번부르짓게되자 해내해외를 물론하고 동족애에서 우러나오는 의연금품이 뒤를이어싸히고잇다 어린이들의 벙어리를들고오는것을 비롯하야 심지어령오(囹圄)의 생활가운대서도 의연금을 거출하기까지 그범위는 참으로 모든사회를 망라하여잇다

본사에서는 그간경성시내는물론 전조선각지에서 모히는 의연금품접수를 개시하고 제일차이차의 발송은 이미마첫스나금십일일 또다시 의복、쌀、약품교과서 기타일용품등으로 재지의 필수품 약륙만점을 발송하엿다 이날아침부터 저녁까지십여명의 인부가 본사서무부원의 지휘로 이백팔십여개의 짐을만드러내엿다 이것은 곳렬차편으로 각지에발송하엿는데 대체로 한지방에 피해정도에따라 사오개씩 배부되리라고한다 우리들은 그들리재민이 이눈물의얼킨물품을바드며 감읍하는 장면을 련상할수잇스나 이도순간적이오 아직도 이것뿐만으로는 그들을 구할수업서 구우일모(九牛一毛)에지나지안는다 백만리재민구제에는 근본적인 항구대책도 급무이지만 우선그들의 옷과 음식은 초미의급무가안이라 이급선무조차 아직도 손가지못하는곳이 병우도만흐니 그들리재민들은 오직사회일반의 구원만을 바라고잇는것을 우리는항상념두에 두어야하겟다

災地로! 災地로! 눈물어린救濟品 (本社後庭에서)

間食을中止하고 六圓을本社寄托

安國幼稚園兒들이

시내 안국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이 얼마동안 군것질을안코 그대금을모아서 일금륙원을 십일일오후 본사에기탁하엿다 그리하야 이번수해지에서 먹을것도 입을것도업서서 고생하는어린이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엿다 지금 사오세밖게안된 어린이들로서는 간식(間食)을안코서는 견딜수업는형편인데 이를중지하고 그돈을모하보내는것은 돈은 비록적으나 어린이들로서는 여간한갑밧이아니라하야 그부형들도 감격하여엿다 한다

槿花女子實業 三十圓을寄托

시내안국정 근화녀자 실업학교직원급생도일동은 현금 이십원과원아일동은 삼원사십전을 모아서 남조선수해리재민에게 보내달라고 십일일본사에 기탁하여왓다

同德女子普校 卅三圓과衣服

시내 관훈정 동덕녀자보통학교장

最高潮의救族熱 現金衣類等遝至

市內各町會猛活動

◇…종로오정목정회에서 현금이백팔원사십이전과 의복등속일천팔백칠십칠점을 정민들에게서 모하가지고 삼남수해리재민에게 보내달라고 십일일오후 본사를 차자와서 발송해주기를 극탁하고갓다

◇…종로사정목정회에서도 현금일백사십일원사십전과 의복이백구십사건과 백미여덜말과 약품일백종을 또한 정민에게 거더서 십일일 본사에가저왓다

◇…시내 남부 부인회(南部婦人會)에서도 현금칠원과 의복 이백여섯가지를 본사로 가저와다고

◇…연지정정회(蓮池町會)에서도 현금 십사원과 의복오백삼십오건과 백미두말을 본사로 가저왓고

◇…창신정정회(昌信町會)에서도 현금 일백칠십륙원십오전과 의복삼천사십구건과 백미두가마니와 약품 사십점을 역시 십일일오후 본사로 가지고와서 수해지동포에게 부처달라고 부탁하엿다

浸水된家屋倒壞로 五名死亡·四名負傷

九日부터全南各地에또豪雨

榮山江岸에또水亂

【靈巖電話】전남(全南)도내에는 지난구일밤중부터 십일아츰까지에 이십내지 이백오미리의 호우가내려 영산강(榮山江)은십일 오후여덜시에 수위칠메-타로 이십륙메-타를 연안주민은또다시공포에 차엿스니 이것은최고로 물은점점 줄기시작하야 십일일오후네시에는 오메-타칠십팔로 감수되엇다 이번에도 도내각처에는 상당히 피해가만흐나상세한것은 아즉입수되지안엇스며 십일일 오후네시현재로 판명된것은다음과갓다

▲死者五名 ▲負傷者四名(家屋倒壞로因함) ▲家屋全壞 三戶 ▲家屋半壞 一一戶 ▲浸水三五四戶

賭租二百六十叺 파러먹은舍音

期米하야全部消費

세상에 이런뻔뻔한 도적놈도잇다。—경기도 려주군 북내면 현암리(驪州郡北內面峴岩里)에살며 명태순(明泰淳)의 사음(舍音)노릇을하는 구인서(具仁書)(음)라는자는 시내 신당정(新堂町)십륙번지 지주겸 포목상 김만수(金萬洙)(六○)=假名=에게서 맛튼 나락 이백륙십가마니를 주인몰래 파라서 그대금 이천이백이십상원을 횡령하고 소관동대문서에서 엄중한 문초를밧고잇다 사건내용은 이러하다。피해자 김만수는 양평군 양동면(楊平郡楊東面)과 룡문면(龍門面)에 약간의 토지를 가지고잇는데 그추수는 운반관계로 소화구년가을치부터 전기 구에게 한가마니 오전의 고료(庫料)를주기로하고 보관의 책임을 맥겻더니 구는이것을 금년류월초순부터 오륙차례에난호하 파라엇다 이사실을 전연모르는피해자는 얼마전에 그의동생 만룡(萬龍)(假名)과 나락살사람까지 보내엿드니 구는벌서이것을파라가지고 인천(仁川)에가서 긔미긔타에 전부소비한것이 폭로된것이라고한다

逮捕된阿片密賣犯 少女誘拐嫌疑도濃厚

西大門署에서中國人을嚴調中

시내 서대문서에서는 십일오전 열한시삼십분쯤에 봉래정(蓬萊町)삼정목팔십번지 중국인호떡장사 신성균(申晟均)방에서 월전부터 그곳에 류하며 아편밀매를하고잇든 산동성(山東省)출생 중국인 왕란정(王蘭亭)(九)을체포하는동시에 일백륙그람의 아편을 압수하여왓다 그런데전긔왕가는 굿게입을다물고 성명은말하지안호나 열한살먹은 조선인소녀한명을 다리고잇서 이에대한 범인의 공술은매우애매한점이만흔데 이소녀를 유괴한것으로인정하고 그소녀의 출처를추궁하고잇다

즉왕가는 소화칠년경에 충남론산군강경읍(忠南論山郡江景邑)에서 리씨(李氏)라는 조선녀자와결혼한후 이래가티 살어오든중국변봉에 두사람이 리혼하게되자리씨가 다리고시집온딸만은왕가가자긔를 따르는고로 다리고잇다고말한다 그러나 왕가의소행을고려하면 이말도도모지 신빙할만한것이 못되여 목하강경에조회중인데 전긔리씨가 출현하면 기타의 소녀유괴사실도폭로되리라고한다

貴重한義捐現金 各地에서續續到着中

수재지의 리재동포를 구제하자는 소리는서울이나 시골을무론하고 방방곡곡으로 노파저서 동족을 사랑하는형제와 자매들의 정성에서 거두어낸 의연금은 공장으로부터 금팡으로부터 기타각처에서 작구부처온다

▲성천군(成川郡)삼천금광(三川金鑛)감독으로잇는 고경환(高敬煥) 윤흥주(尹興柱)량씨는 리재민을구제하자고 쓴 팔월이십일부의 본보 사설(社說)을 발긔문으로삼아 그광산로동부들로부터 의연금 오십륙원십전을 본사성천지국으로 거처 본사로보냇스며

▲조치원(鳥致院)일이구부인회(一二區婦人會)에서는 의복팔십사점과 백미구승사홉을 수합하여 보내다

▲신의주영정(新義州榮町)이정목 주식회사 신연상회(新延商會)에서는 사장 박룡운(朴龍雲)씨이하 사원직공일동이 현금일백구십구원십전의 의연금을 수합하야 본사로보내고

▲한국군건포면(咸州郡乾浦面)사민계(社民契)대표 최상하(崔相夏)씨는 현금 사십사원구십전을 부처보냇다

▲성진읍내욱정(城津旭町)원세창(元世昌)씨는 본보성진지국을 거처 현금십원을 본사로보냇다

리여구(國部女?)씨의 직원과 아동일동은 남조선지방풍수해로 고통을 당하고잇는동제를 위하야 약소하나마 보태여서달라고 현금사십사원이십구전과 의복사십오점을 모하서 수해자로 보내여달라고십일일오후 본사로차저와서 긔탁하엿다

精乳舍牛乳配達員 十三圓五十錢寄托

시내본정 정유사(精乳舍)우유배달부일동은 십사원오십전을 모하야 본사에 긔탁하여왓다

▲평남중화군간동면(中和郡看東面) 간동공립보통학교직원생도 일동은 현금칠원구십전을 모집해보내스며

▲한국군하기천면동흥리(咸州郡下岐川面東興里) 간소흥학당사무소(簡素興學堂事務所) 류달홍(劉達洪) 리관호(李寬浩)씨등 소원일동은 의연금이십사원사십구전을 수합하여보내다

▲강원도김화고등학원(金化高等學院)생도일동은 정성껏모은 돈오원이십전을본사로부쳐보내다

京城府의擴張따라 警備力도補充!

十一萬七千圓經費로

경성부구역 확장에 따라경비력(警備力)이 조약한곳에 보충할필요가 잇다하야 경무국에서는 명년도예산에 그경비로 십일만륙천팔백 팔십구원을 요구하엿는데 그것이 실현되면 경부세명과 경부보네명과 순사일백사십삼명을 증원하게될터이라한다

電話賴信者激增

경성우편국에서는 가입전화로써 전보의 뢰신(賴信)과 수신(受信)을 희망하는 『전선탁송』(電線託送)을 하는이가 요지음에갑작이 증가하므로 종래 세대를 설비하엿든 전보탁송용의 전화를 다시 한대더 설치하기로 되엿다 경성우편국에 가입한사람의 수효는 일백사십이명인데 그뢰신하는 수는 하로에 평균 오백사오십통이나된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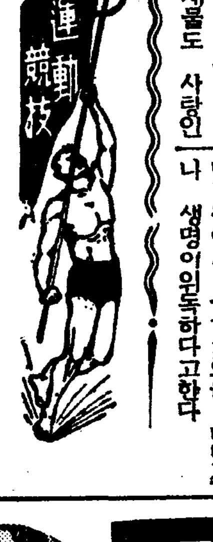
國防教育會時局講演

국방교육회 조선지부주최로 시국강연회를 개최한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장소는 개성부 사회관이라한다

양잿물을사랑으로 어린아이들은 양잿물도 사랑인줄알고먹으니 어머니된분은 특히주의할일—시내 리화정(梨花町)이백이십번지 번룡화(潘龍華)의둘째딸 덕히(德姬)는 십일아침 어머니가쓰다가둔 양잿물을 먹고 고민하는것을 얼마뒤에집안사람이알고 깜짝놀라 부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바덧스나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六個校代表의 壯烈한柔道戰

今日!鍾路青年會서



在東京留學生武道會主催의 第八回全朝鮮中等學校柔道大會는 이욕고 今十二日午後一時부터 鍾路青年會館 運動室에서 壯快한幕이 열리게되엿다 이날每校의名選手를 질머지고 榮譽의 活舞臺에出場할 六個校代表의 對陣은 다음과가티 抽籤決定되엿는데 往年의 霸者中央軍의 牙城을 무찌르고우리中等柔道界의 王座를 차지할者는누구일것인가?滿都의人氣는 오로지 이快烈한柔道戰에 集中되고잇다 이날의入場料는 場內整理費로 一般二十錢 學生十錢을 밧기로되엿다

◇…各校의陣容

▲中東 監督 金文煥 韓望律 金光浩 李相鶴 羅鍾煥 林應鎬 候補 閔埈植 蔡忠鉉

▲普成 監督 李彭鳥 李翰明 權正燁 鄭泰勳 成宙濟

▲徽文 監督 李圭鼓 金斗鉄 金泳烈 具然相 方翔學 洪性五 候補 李俊鐵 鄭憲甲

▲金泉 選手氏名(不明)

▲中央 監督 韓鬱熙 鄭在洙 黃潤大 金義問 鄭秉浩 白根浩 候補 鄭鍾燮 李俊浩

▲儆新 監督 李尙俊 朴尙郁 金永奉 周柳衡 金德培 崔健植 候補 梁元錫 姜大鴻

決勝戰: 中央高普 / 普成高普 ① / 徽文高普 / 金泉高普 ② / 儆新學校 / 中東學校 ③ ④

學生籠球對陣

專門三校、中等十六個校參加

來十六日부터四日間

中央基督教青年會主催의 第十二回 全朝鮮學生籠球選手權大會는 來九月十六、七、八、九의 四日間(每日午後二時競技開始)鍾路青年會庭球コ-트에서 擧行할터인바 同大會의 參加校는 專門部에崇專、普專、延專等三個校와 中等部에는 멀리地方으로부터崇實中學、海州高普、松都高普를 비롯하야中央의 十三個校等 合하면 實로十九個校에達하는 盛況을이루고잇는데 主催側에서는 昨十一日午後八時부터 各校代表들의 立會下에 對陣을抽籤決定하엿다

中等校部

第一日	第二日	第三日	第四日
二高 / 徽文			
養正 / 海高	〃		
商工 / 道商	〃		
漢商 / 松高	〃		
大東 / 崇中	第二日		
儆新 / 普成	〃		
養賢 / 培材	〃		
協實 / 中東	〃		

專門校部: 普專 / 崇專 第三日, 延專 第四日

全朝鮮野球爭霸 京城府廳優勝

象二浦日鐵惜敗

京日主催의 第十三回全朝鮮野球爭霸戰決勝…象二浦日鐵對京城府廳戰은 十一日午後四時부터 京城球場에서 柳(球)中村、橋口(壘)三氏審判下에 象二浦日鐵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三A對零으로 京城府廳軍이 優勝하엿다

◇捕(府廳)松元─崔仲乙(象二浦)

菊地─上沼

象二	0	0	0	0	0	0	0	0	0	0
府廳	0	0	0	2	0	1	0	0	A	3

◇◇今日의運動◇◇

▲柔道=在京留學生武道會主催第八回 全朝鮮中等校 柔道大會 午後一時 鍾路青年會體育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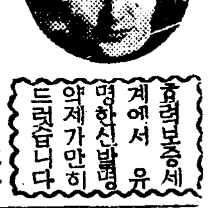
▲庭球=秋期리-그第一日 朝銀對鐵道(朝銀コ-트)以上午後三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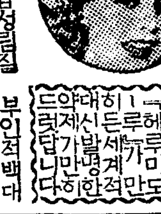
▲野球=秋期리-그第一日 京電對殖銀(殖銀コ-트)以上午後三時 對府廳(午後一時) 鐵道對殖銀(午後四時)以上 京城球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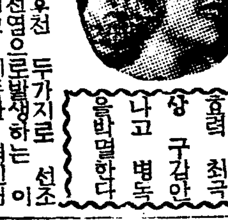
▲水上=第十二回 朝鮮神宮水上大會 第一日 午後零時半 京城府營풀

▲럭비=秋期리-그第七日 鐵道對藥專(午後一時) 培材對京專(午後三時)以上龍山球場

보음보양 젊어지는약 KAIZER 가이자ー 가제일


폐병 늑막염에 부족증 NAOPER 나오페ー 가제일


림질 냉대하증 병엔 KUROBER 구로벨 이제일


매독엔 PROTERI 푸로테리 가제일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京城府西大門電車停留場側五 電話光化門三三四番

골목골목 거리거리 눈물겨운町會活動

桂洞、東崇、蓮建、梨花、孝悌等各町에서 衣服金品多數募捐

수해구제 금품을 모으기시작한 후로 시내 각 정회의 눈물겨운활동은 실로 맹렬하야 골목골목 거리거리는 리재동포구제의 깃발로 한비솟이루고있다 십일일에는 또다음과가튼 수해의연금이 각정회로부터 본사에 드러왓다—

○○……계동정(桂洞町)정회에서는 현금백칠십삼원과 웃입천오백예순아홉가지가 총대김영한(金永漢)씨의 명의로 보내왓고

○○……동숭련건리화정(東崇蓮建、梨花町)련합정회에서는 대표자 류근택(柳根澤)씨의 명의로 현금사십이원칠십전 웃입천백여든여섯가지와 쌀서되를보내왓고

○○……도효제정(孝悌町)정회에서도 현금륙십팔원이전 웃팔백아흔네가지 고무신두커레 쌀닷곱등을 총대 박주명(朴柱明)씨의 명의로보내왓다。

災地로보내는溫情

個人도團體도 白熱的發奮

和信外九個處에서

수해리재민을 구제하자는 동포애의 소리는 날로 노파가는터로 시내각상점、조합 교회 사찰등으로부터 그의연금이 눈물겨운 동정의글빨과함께 날마다 본사로 답지하는형편인데 십일열에 들어온 그세목은 다음과 갓다

▲一百圓也 京城府寬勳町一二二 崔相憲

▲八十一圓二十九錢 和信連鎖店株式會社京城本社 京城、平壤配給所及模範連鎖店職員一同

▲衣類一百九十件 京城西大門町一丁目三三 京城女子基督敎靑年會

▲二十二圓四十錢 京城東大門理髮營業組合員一同

▲十七圓七十五錢 京城家具修繕職工組合

▲一百圓 市內淸凉里町 時兆社信者一同

▲六十圓 市內回基町 安息敎會

▲五圓也 京城府昌信町六二六의七 地藏庵僧侶一同

▲十七圓五十錢也 京城府奉元町 奉元寺

全數의九十一%

仁川各普校生寄生蟲保持率

【仁川】우리의유일한희망이되고 또한 꼬친제이세 전인천각보통학교 아동전부의 건강을 조사한바에의하면 기생충보지자가 실로구십일퍼센트에 달하는 비참한상태이다 학교별조사는 다음과갓다

第一普校

	檢診數	十二指腸蟲	蛔蟲	鞭蟲
男	九四二	二三	五九五	二三〇
女	三一五	一五	一八七	六七
合計	一二五七	三七	七八二	二九七

第二普校

	檢診數	十二指腸蟲	蛔蟲	鞭蟲
男	二七四	二四	二四一	二四八
女	五三	四	四二	四四
計	三二七	二八	二八三	二九二

寺町小學校

	檢診數	十二指腸蟲	蛔蟲	鞭蟲
合	七五七	一四	一九一	三五四

櫻峴小學校

	檢診數	十二指腸蟲	蛔蟲	鞭蟲
合	六〇九	四	一六四	一一一

壽松公普男子同窓會

수송공립보통학교(壽松公普)에서는 남자동창회를 십이일 토요오후삼시반부터 모교강당에서개최한다는데 회비는 이십전이오 다수참석키를 바란다한다

仁川體育會徽章募集 이십일까지

【仁川】각종운동계에 만흔공헌이 잇는 인천체육회에서는 그간인천부외리(仁川府外里)동회관을 건축중에 잇는바 그 준공을 보게되얏다 동소동과한가지 동회회장을 일반전문가에게 모집키로 되엿다는바 지망하시는분은 이십일까지 동회로 도안을 송부하야 주기를 바란다하며 당선된분에게는 박사를 지정키로 되얏다 한다

漢榮高等學院의 高等受驗科好績

시내 삼각정(三角町)팔십구번지 한영고등학원(漢榮高等學院)에서는 금번입학기부터 고등전문학교、대학예과 전검수험자를 위하야 영어수학두과목에대한 고등수험과(高等受驗科)를 특설한 결과 대단이 성적이 조흔중에 비추어 제이학기에도 오는십오일부터 십이월십오일까지 개강하기로되엿는데 이번에는 수강자의 편의를위하야 두반으로난호아 강의를 한다고하니 자세한것은 동학원으로 문의하기를 바란다고한다

本町署管內野犬撲殺

시내 본정서에서는 광견병(狂犬病)예방의 목적으로 십이일부터 십오일까지 관내에 야견박살(野犬撲殺)을 실시한다는때 축견(畜犬)에는 반듯이 사양자의 주소씨명을 명시한 감찰을걸고 혼자서 거리를 방황하지안토록 주의하고 축견신고를 하지안흔것도 속히 신고하기를 바란다 고한다

野犬撲殺

시내종로서 위생계에서는 오는 십사일부터 사흘동안 관내에잇는야견(野犬)을 박살하기로되엿다는데 경찰에게 출하지안흔 개라던지 행방불명이되여잇는개는 그전에 빨리게 출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한다

富川龍遊面에 彰明學校設立

隣近婦人들의熱誠

【仁川】부천군룡유면포명리(富川郡龍遊面浦明里)는 황해연안의 빈한한어촌으로서 황해에일엽편주를띄여 고기를낙가그날그날의 생활을 지속하는곳이나 그들의 유일한희망인 제이세를 교육식히고자하나 배울곳이업고 통학을한대야 삼사십리를 도보로통행하게됨으로 배움의 혜택을입지못하고 오즉룡가에서 시집과 룩자난으로 소일할 술뿐이엿다 이를한상 유감으로생각하고잇든 최중의(崔重義)씨는 충분치못하나마 두간방에서 동리아동을 모아노코 언문이나 가리키고 잇든바 특히금년봄 박광훈(朴光勳)씨가 학교기지로써 오백평을희사하게되자 동리부인들은이에 감동되야 다각기 시작하야 건평이십여평이나 되는학교를 건축하게되야 구석에서 배호는아동은 말할것도업고 완전한교실에서 배호게된 아동들의 깃븜은물론이요 젊은어촌에서 동리부인들의열성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야 부근어촌의교육열이 점점팽창하야지는모양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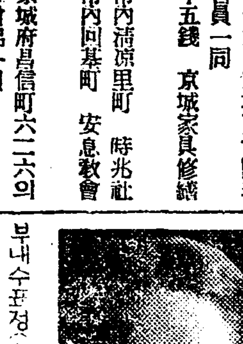
職業女姓俱樂部서 素人演劇公演

來廿二日夜府民館서

근일 이사회의 기현현상의 하나로 녀성의직업전선진출이「맛친」를 노피고잇는사실이 지적되고잇다 이와가티 새로운인생행로(人生行路)를 밟고잇는 장안의 모하여서 각괴의친목과향상을 도모할려고 직업녀성구락부(職業女性俱樂部)가 경성녀자기독교청년회(京城女子基督敎靑年會)안에 조직되여잇다 그회원은 각계(各界)를망라하야 현재 약사십여명에달하고 창립한때 미하나마 창립취지에 따라서노력하고잇든바 금번회세를 확장하는의미에서 대외적사업의 첫거름으로 오는 이십이일밤부민관(府民館)에서연극(演劇)의밤을개최하기로 되여 매일맹렬한 연습을거듭하고잇다。 그런데 이모임에 새로운것은 출장맴버ー가 모다 회원자신이라는것인데 순전히 아마튜어녀성들의 무대가 처음으로 공개되느니만큼 지금부터 대단한기대를 모혀고잇다 상연각본(上演脚本)은『비극(悲劇)의난』이고 리량숙(李良淑)씨외십여명이 출연한다

東新學園의隆運

現金二百圓을自進義捐한 朴春淑女史의特志



부내수표정(水標町) 사십이번지조선교육협회(朝鮮敎育協會)안에잇는 동신학원(東新學園)은 지난봄에 교사를수리대확장하고 입학난에 울고잇는 어린이들을대대적으로 모집하야 현재소학부(보통학교륙년제) 칠학급 사백구십명과 중학부일학급칠십명을 합하야 오백륙십명생도를 일곱분선생이 담임하야 가르치고잇다

그러나 배움에주린 어린이들은 사방으로부터 물밀듯 모혀들어 어느듯 교실은협착하게되엿다 명년도의 숭격문제를 아페두고 로력을거듭해온 학교당국에서는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난판이 잇슴에도 불고하고 백방으로 주선하야 금년 여름방학동안에 또새로히 교실을 증축하고 이학기부터 아동을 증모하는중이다

이와가티 학원당국자의 꾸준한 열성과 학원재정의 어려운 정상을 드른시내창신정(昌信町)일백사십번지 박춘숙(朴春淑)녀사는 일즉부터 교육사업에 대한 만흔동정심을가지고잇든터에 금번동신학원의 어린이들을 위하야 뜨거운정성으로 현금이백원을 자진의연하엿다 고한다 동녀사는 아프로도 이학원의 장래에 만흔기대를 가지고 로력하리라는바 학교당국의 감격은 물론 일반학부형들도 박녀사의 갸륵한뜻을 감사해마지안는다고한다 (사진은 박춘숙녀사)

各學園의總動員

市內微新學校外五個校에서 —多數金品을出捐—

남조선일대와 강원도지방을 연거퍼두차례나엄습한 풍수해의참상은 직접 보지못한사람에게도 그롷게수자가 가슴을서늘케하고잇스며 구제의적성이 너른이사회에서 물끌틋하고잇든이상 순정(純情)의 동심(童心)을 자극주고잇스니 경향각지에서 녀녀지못한 호주머니를털러 푼돈을 모혼 의연의열성이 이것을증명하고잇다 십일일 본사에긔탁하여온 각학교아동선생들의 의연금과의복은 다음과갓다

▲一金八十五圓十四錢也 市內鐘路町微新學校生徒職員一同

▲一金三十三圓七十四錢 市內樂園町 聖藥院公立普通學校兒童職員一同

▲一金八圓七十六錢 衣類十一點 市內光熙町 光熙培明學校兒童一同

▲一金三圓 市內光熙町敎會內主日學校兒童一同

▲一金五圓也 全北大野公立普通學校兒童職員一同

▲一金九十五圓七十五錢也 新義州公立普通學校兒童一同 (新義州支局取扱分)

仁川體育會主催 全仁川蹴球大會

【仁川】인천체육회는 창립이래 예각종사업에 열중하고잇는바 금번은특히 조선의 특기가될만한 축구를 장려키위하야 오는십이일간 도산(桃山)구장에서전 인천축구대회를 개최키로하얏다는데 규정은 다음과갓다한다

▲資格 三個月以上仁川에居住하는者에限함

▲選手 一定한〃마크〃를 붓친〃유니폼〃을着用할것

▲申請 九月十日까지 仁川商事運動具店으로

▲參加金 一團體三圓

▲時日 十二、三兩日間

▲場所 桃山球場

竊盜를目的으로한 誘拐魔一網打盡

仁川署에서嚴罰

【仁川】얼마전 인천부금곡리(仁川府金谷里) 동신상회(同信商會)를 위시하야 부내각처를침입하야 절도를감행한 절도상인단을 인천서에서 체포하야다함은 이의보도한바와갓거니와 그들의취조에따라별별기괴한 사실이판명되엿다는데 지난십일일은 인천부금곡리(仁川府金谷里)오십사번지 백성녀(白成女)방의 고용녀 김순모(金順模)(二七)리량오(李良五)( )두명은 참내 칠팔개구류의 처분을내리엿다는데 내용을 조사한바에의하면 그들은현재절도죄로 체포중인 류재헌(柳濟憲) 박진석(朴鎭錫)등으로상대로하야 유괴흥은 매춘까지하야 그들의 절도장물을 착취한것이라한다

染病患者七十名

客月中市傳染病狀況

작월한달동안에 경성부내에서 발생한 적리(赤痢)환자는 일백팔십륙명이며 장질부사환자는 칠십명이엿는데 적리환자는 전달(칠월)의 발생환자 이백륙명에 비하야 이십명이적고 장질부사환자는 전달의 삼십사명에 비하야 배이상으로 발생하엿다 이달에 드러서도 십일까지에 벌서 명이나 발생하엿다 절후가 바뀌는 때이므로 적리환자는 아직도 작구 더발생될 념려가 만타 일반은 음식물에 더욱 주의하여 장질부사도 잘단속하여야되겟다고한다

社會事業協會收合 水害義捐金

▲一〇〇、〇〇 天理敎中央敎會 ▲一〇、〇〇遞信局庭球部選手一同 ▲一〇、〇〇京城日報社大邱支局扱(姓名不明) ▲二〇、〇〇滿洲國圖們市久保賢 ▲一〇、〇〇同新井新友會 ▲六、〇〇黃海道延安邑宋永奎農具店一同 ▲一七、〇〇京城府本町京城荷札印所所員 ▲五〇、〇〇南大門通朝鮮蔘酒株式會社 ▲五〇〇、〇〇同鮮鮮蔘酒株式會社支店 ▲二〇〇、〇〇通仁町一〇宋星鎭 ▲三〇、〇〇蓬萊町四ノ六七肥塚正太 ▲三〇〇、〇〇南大門通二丁目眺商會 ▲五〇、〇〇同眺商會店員一同 ▲三〇〇、〇〇千代田生命保險會社全鮮職員 ▲二〇〇、〇〇三淸町一四五閔奎植 ▲五〇〇、〇〇株式會社德力山田晃 ▲一〇〇、〇〇株式會社德力店員一同 ▲一一六、六〇南大門通세브란스病院職員 ▲二三〇、〇〇朝鮮商業銀行內店員一同 ▲一八五、六二各無盡會社 ▲一〇〇、〇〇淑明女子高普校職員生徒 ▲一七二、七〇公平堅志町町會會員 ▲三四一、一〇西四軒町町會會員 ▲朝鮮社會事業協會京畿道支部扱 ▲四五、三一京畿線馬出汽車通學生一同 ▲三〇、〇〇黃金町二丁目菊水車平井靜技 ▲三七、〇〇同菊水內從業員一同 ▲三五、八〇福岡縣田川郡後藤寺セメント工場從業員

▲一一、五〇福岡縣後藤寺警察署扱 ▲一〇〇、〇〇福岡縣戶畑正光會本部 ▲一〇、七〇太平通二九〇橋本製作所社員 ▲一一、〇〇春川公立農業學校鄭永時 ▲三九、一四〇愛國婦人會永登浦分區聯合會 ▲二、〇〇住所姓名不明 ▲一〇、〇〇〇任友會資會社 ▲一、〇〇〇京城商工會議所 ▲三六〇、〇〇內譯은左記(各自十圓宛) 議員(京城商工會議所) 內山寬正 孫元榮 伊藤東作 朴永根 渡邊慤次 渡邊義一 梅澤友七 山本正三 吉岡定次郞 柴田國一 田川常治郞 松浦齊生 高居浦三郞 藤田米三郞 堀直喜 靑木福司 關根金作 洪祠裕 河野又一 田中三郞 藤貞市 金圭冕 伊藤彌市 河合治三郞 植山仲治郞 戶島祐次郞 都築康二 蘋田直治 藤井寬一 松田淸 特別議員(京城商工會議所) 加藤敬三郞 有賀光豊 朴榮喆 韓相龍 松井房治郞 谷多喜磨 ▲一〇、〇〇佐賀市唐人町新町共榮協會 ▲八一七、六五福岡縣飯塚警察署扱進會長猪野龍治

▲朝鮮中央日報社扱

▲一〇〇、〇〇 天道敎中央敎會 ▲一〇、六五 南原郡有志 內譯 一〇錢 張彰淳 崔東述 金鎭宅 金斗植 無名氏 一五錢 マルヨ

シ洋品店 一〇錢 任永植 陳在燮 鄭宗植 金永用 京城旅館 金正植 李炫麟 孔在天 三〇錢 鄭仁權 五〇錢 梁商洙 丸一運送店 李順龍 一圓 河龍鐵 五圓 朴昌基 (以上十一圓二十五錢中送料六十錢을除함) ▲二〇、〇〇京城榮圖本館女給一同 ▲一、八五大阪三島郡金光水 同 金鎭萬 (但五圓中則送衣服送料三圓十五錢을控除) ▲二三、〇〇 水原郡有志 內譯 一圓 李鳳秀 尹洪子 朴海陽 二圓 第一社職員一同 三圓 興產會社職員一同 五圓 醸造會社職員一同 十圓 第一社 ▲一、一〇 寧邊郡北新峴面杏亭市安龍女 ▲三三、八〇論山江景面有志內譯 二〇錢 錦江旅館 金德水 申文熙 李善浩 崔相基 三〇錢 金一坤 崔溶權 趙源略 蔡壽福 蔡壽一 梁漢星 五〇錢 金玉田 劉紅桃 金花仙 韓昌義 李恩聿 金振洙 朴光三 柳觀烈 金元洙 李二岩 尹漢炳 朴綿香 玄相孝 安重鎬 一圓 李南杜 高相俊 三光醫院 金炳允 孫貞紅 金敬獸 方奎煥 金碩坤 劉桂香 兪小香 車玉仙 朴春花 金花中仙 金榮均 梁順柱 二圓 鄭鎭國 黃錫鉉 田春植 三圓 尹吉重 ▲二八、三九 長城郡有志 內譯 五錢 金聖濟 朝日理髮館 一〇錢 衛生理髮館 長城寫眞館 二〇錢 湖一藥房 林南華 金宗鎬 永信自轉車店 安全自轉車店 吳秦鉉

悅賞植 申鉉泰 李月仙 三圓 秋永商 五圓 裵商浩 李載弘 蘇鍾明 五〇圓明月館敎義町五錢 李九吉 一〇錢 朴善喆 金榮源 鄭士元 成勳鎬 崔在浩 張世益 邊海鵬 韓鳳教 金正鎬 盧順明 朴均植 金炳淳 一五錢 朱玉順 李明五 二〇錢 金寶 宋秉熙 金恒洙 李泰平 崔亨植 申鉉邦 崔允教 朴永善 尹永福 文冠山 金台鎬 李明秀 金鳳鉉 權承達 李鳳龍 金命吉 金性者 徐鎭奎 金元三 鄭在龍 朴春眉 崔龍珠 文珠龍 金福仁 金姓女 金龍雲 三〇錢 金廷玉 鄭命昌 朴山月 金信玉 林祚得 一二五錢 朴敬愛 五〇錢 文愛只 宋基俊 張石仁 金正姜 辛龍雲 金文鳳 金觀模 尹壽仁 鄭某會 姜德春 宋漢俊 金學鎬 姜順伊 柳載植 金鍾夏 金在元 洪花子 尹興洙 李壽福 方昌吉 鄭明善 趙蓮衛 李德三 金子根 金載杜 金敎學 一圓 柳與煥 柳白善 金小成 韓錫煥 崔行源 金俊成 黃善鎬 鄭子英 石衛煥 福海軒 李晄鵬 元敬順 裵學模 全一堂 鄭榮姬 金大泳 林錫洪 一圓貳拾錢 金壽延 壹圓五十錢 朴浙浩 貳圓 朴世根 金然權 李翼植 參圓 安鎬奎 金仁浮 二〇圓 韓成社 ▲三、〇〇 牙山有志 ▲二七、〇〇 大阪山川製場所內鮮人一同 ▲一、五〇京城嘉會町齊洞町有志 ▲一〇、〇〇居珠町三洋金員一同 ▲六、一〇京城樓上町樓下町有志 十錢 魏洪禎 朴熙寬 高渭煥 二十錢 金聖鎬 朴容文 金圭煥 金正煥 金鳳煥 三〇錢 李桑雨 五〇錢 嚴相殷 閔泳台 任鱗宰 一圓 朴漢容 金濟鉉 李明世 ▲五、〇〇 全州一讀者 ▲四〇、四七 東京有志 內譯 一〇錢 趙德根 具滋植 林善行 權大榮 崔昌龍 梁明煥 全仁奎 李泳雨 金東勳 朴順龍 洪成達 李瀚成 朴敬在 李貞淳 閔丙八 吳光運 朴鎭完 玄永澤 朴炳善 全寶鎬 吳良燮 李正元 朴來禧 李守萬 崔庚山 鄭龍權 金聖云 金興甲 安春煥 李奧鎬 一二錢 金玉子 一五錢 楊貝鉉 二〇錢

李鴻求 成炳圭 吳龍伊 金鳳述 裵台鳳 金五득 吳有洙 金斗煥 申海雲 金周和 金榮九 金炳文 鄭雲澤 姜滿遠 王瑞潤 二五錢 金永植 七〇錢 張洛道 一圓 申章燮 一圓五十錢 李鍾完 ▲三三、二五北平智世國外十二人 ▲六五、八五 仁川有志 內譯 一〇錢 洪思榮 安寧金 金錦姬 金牡丹 金梨花 朴春花 一五錢 崔彩鳳 二〇錢 李圭明 洪成裕 朴仁順 李彩雲 洪綾波 崔鶴仙 河桂香 河一朶紅 金桃紅 鄭桃花 李花仙 薛金鳳 崔月中仙 孫蕙蘭 裵香蘭 金香草 車一點紅 李月姬 金明珠 林柳色 金半月 金月出 朱明月 李弄月 姜蓮月 趙山玉 金貞愛 金玉花 金點紅 李雪桃 李彩月 金弄玉 尹鳳蘭 姜松子 黃順子 柳水鶯 吳明花 李紅梅 朴竹心 文花子 鄭櫻花 金錦花 鄭明珠 金碧桃 柳明玉 李蘭紅 鄭錦香 陳水玉 黃瓊蘭 南玉子 金鶯鶯 安桂仙 金彩珠 金珊瑚珠 李菊花 朴玉菊 徐春紅 楊梅花 鄭錦紅 朴蘭珠 三〇錢 李昌宇 洪南壽 張美花 白玉姬 金秋月 崔錦仙 李珍鳳 吳蓮心 梁彩花 金香仙 金錦玉 宋彩瓊 鄭鳳仙 李惠淑 白貞淑 金仁淑 朴英子 宣月中仙 李玉蘭 金錦子 朴春蘭 朴珍紅 柳芙蓉 金春玉 朴桂月 李蓮香 金愛子 金花蓉 朴玉心 崔月香 姜月色 姜飛鳳 姜玉珍 五〇錢 全白雪 李仙草 李一色 林月桂 文錦珠 姜蓮花 張蓉蓮 崔水月 尹雲深 申愛玉 朴玉瓊 金春子 崔瑶琳 張文煥 姜雲仙 鄭雲中梅 崔春玉 金彩玉 崔山玉 朴良春 嚴一技蓮 李玉桃 李香心 李江南紅 李梅紅 金松花 一圓 崔玉葉 李錦泰 車順貞 金明鎬 殷錦鳳 崔鳳煥 金明淳 金鳳植 金花蓮 朴永洙 宋德根 洪甌珍 郭泰金 崔炳儀 二圓 任弘淳 三圓 河錦明 五圓貸座敷組合 二〇錢 朴仁貞 梁寶德 三〇錢 金德元 五〇錢 李良淑 李明淑 李亨鎭 黃眞明 金和衡 金元泰 宋永鎬 金命壽 禹正熙 金元適 兪信澤 李亨鎭 金元泰 禹正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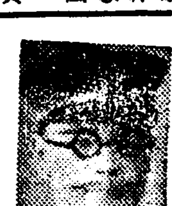
▲七、〇〇 京城府西四軒町無名氏 ▲八、五五 東明學院兒童一同 ▲一〇、一八 明星學校生徒一同 ▲九、五〇京城壽松町淑明女學校校友會 ▲三、三五 通信商會店員一同 ▲二〇〇、〇〇京城宮井町李鍾九 ▲一一、三三 唐津郡松岳面五谷里共同耕作會 朴濟文 五圓 韓武鉉 ▲八、〇〇 高原郡有志內譯 一圓 高原天主敎會 ▲一〇、〇〇 京城府觀水町金仁淑 ▲二、〇〇 京城府無名氏 ▲二〇、〇〇同壽町大京스포츠商會 ▲三、〇〇同明治町 李孝源 ▲一、〇〇同水下町 許鎬 ▲一四、五二 京都市中京區 神明町鮮人一同 ▲一五、七六 淸津靜山學校職員及生徒一同 ▲五五錢淸津池順愛 ▲一五、〇〇京都留學親友會內譯

九月九日 累計 七三、六四五、五五

本舖 株式會社 野村商店

▲そろばん下手では出世が出來ぬ
新式 速成 珠算獨習の秘訣 ▲圖解で秘意公開!
珠算原理速成術 詳解 九九原理 極上等算盤
特價一圓
發賣元 現代出版社

朝鮮日報社安岳支局 電話 二一八番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京城府永樂町二丁目 電本(2)三〇三〇番

山羊乳 キング山羊牧場 京城東小門外城北町 振替口座京城三三〇番

조흔家庭工業 第一 第二 株式會社

鮮日報社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桃花劇場 東劇座 新富座 公演 九月十二日부터 史劇 佛國寺 全二幕 魔都의天使 全一幕 別莊과奇緣 全一幕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光三三三 喜劇『危機一髮』一幕 『靑春頌歌』三幕四場 林仙圭作

ライトインキ
天下一品! 一家一瓶!
能率은 항상 라이트와 함께平行한다!
2オンス入(スポイト付) 正價30セン

本社接受水害救濟品 (九月十一日現在)

物品合計 五萬五千八百七十三點
白米合計 六俵七升六合

在留婦人一同
兵庫縣武庫郡大庄村道意新田
衣類 六〇點

禮智町町會
衣類 五五一點

峴底町町會
衣類 一五六一點

開運寺
衣類 五九點

華溪寺
衣類 七二點
白米 一俵

興天寺
衣類 一五一點

黃金町三丁目
衣類 三三九點

東崇、蓮建、梨花町會
衣類 一八八六點
白米 三升黍五升

弼雲町町會
表類 一二七六點
白米 六升
教科書 十一冊

天然、玉川町會
衣類 一九〇三點
白米 六升七合

紅把、杏村町町會
衣類 一三九九點
米一斗 藥三五點

新院繁榮會
衣類 二二一點

花洞町町會
衣類 二二九點
白米 三升

鍾路三丁目町會
衣類 五七四點
(昨日의 笠井町町會라함은誤植)

新遊廓組合
衣類 二〇五點
(昨日新町遊廓組合이라함은誤植)

黃昏 (177)
韓雪野 作
安夕影 畵

대 책 (十)

그노구겟든지 조건에 맞는대로 이마에서부터 발뒤꿈치까지 가루를 내주고십도록 정념은 치가 떨렷다。

려순이도 물론 마음사(龐新)가 되기를 바라는 정념의 손아귀를 버서날수업는 한사람이엇다。 그는 당장 몸을 차고 들어가서

『요변! 그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너는 그래깨끗하나? 이치사스러운년! 입이 팡주리 구영가리 안키로서니 배갓년이 말이 무슨말이냐?』

하고 장욕을 퍼붓고싶혓다。

그때 사장의 말소리가 다시 들려왓다——

『하여간 려순이 일은 내가특별히 고려하고 잇스니까 가령 공장에 그대로 잇다 하더라도 여게 잇든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공장안 형편이나 잘살피오……그리고 뭐 눈에 띄는게 잇스면 아무와도 말할거업시 바루 이리로 올라와서 나와 직접 말해주오』

『뭐 별로 말슴 드릴거리구잇서야지요 모두들 성실히 일하는 사람뿐인데……도리혀 저가튼게 일에 서투러서 실수하면 혜지 그담사람은 조곰도 내놀할점이 업습니다』

하고 려순은 겸손히 사장의 말을 막으려한다。

『아니 그런게아니라 아까도 말한거지만 어저께가티 그런 일이 잇슬때에말요。그런것도 곳 와서 일러 주면 내가 로량해서 잘처리하도록 주임이나 담당들을 단속시킬 거란말요。그래야 회사를 잘운전할수 잇슬거아니오? 또 비록 크잔흔일이라하더라도 그런일이 생기는것부터 나뿐놈들이 끼여잇기때문이니까 그런것을 잘살피는동시에 려순이가 착한직공들을잘 단속해서 그런일이 업도록 지도하란말요……마침 경우가 조치안소? 려순이는 옷사무실에 잇섯고 따라서 사장이하 중역、사원들과 잘알고잇슨터이니까 다른 직공들은 려순이를 부럽게 생각할것이고 동시에 려순이와 접근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잇슬거란말요。즉 려순이와 접근하면 사장직계(直系)가 될수잇다고 생각할거란말요。그러니까 그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달은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직공을 지배하도록 하란말요』

『아닙니다。직공의 심리는 회사사무원과는 달른줄 압니다。옷사람에게 부터살라는것 보다는 차라리 제동과 동료를 더 밋지안는가 생각합니다。그러니까 지가 옷사무실에 잇는동안것은 항상 유리한 조건이 되지못햇습니다。 도리혀 지자 그때뒤를 내면 의심과 미움을 밧게게될것니다。 그래서 직공들이 일시 오헤나하지안나 하고 오히려 저는 필요이상으로 근신하야 잇든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재로서자신이 남의 지도를 바다야 할자리에 잇는 사람인데、남의 지도하다니요? 뿐만아니라 직공들은 모다 성실히 일하고잇스니까 뭐 동정을 살필 필요도 업고、또 따로 파당을 만들려유도 업습니다。

그것은 첫재 남의 역심을 사는 장본이 될것이고 따라서 이편에 의혹을 가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별개의 파당을 형성하게 할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공연히 평지에 파란을 일우게 될른지도 모르는것이아닐니까?』

려순이가 어엿이 이러케 자기의 의견을 베프른다음 사장이 무슨말을 꺼냇스나 별안간 목소리가 나자저서 정념은 그 말의 내용을 알아들을수 업섯다。

사장의 말소리가 나자지는 반비례로 정념의 신경은 더욱솔깃해저다。

(무슨 비밀담일까?)

하는 마음 제린 궁금증이 생겻든것이다。

『그만 나가겟습니다』

하는 려순의 말소리가 들려오자、사장은 곳 다시 목소리를 조곰 놉히며、

『아니 잠깐만……』

하고 만류해 노코는 이어서、

『려순이도 좀더 충분히 생각해보란말요。만일 려순이가 이번에 올라와 잇게되면 전보다는 대우가、칠신 나어질거고 또……』

하고 위선 구수한 밋기를 던저노코는、뒤이어、

『그리고 려순이 생각만 잇다면 가족을 네려올려와도 조흘거요。거기대해서는 전일도 말한바지만 내가 책임지고 보아줄생각이오』

하고 가족에게대한 책임감까지 리용해가며 그를 자기의뜻에 쪼게하려는 상이엇다。

그렇판에 어듸서 발소리가 뚜려두거 들려왓다。

솔혀까지 옷삭 처서는것을 깨달으며 피돌아서는 순간、정념은 이층망하률 걸어오는 경재를 언뜻 바라보며 가슴에서 무엇이 철렁하고 떠러지는것을 늣겻다。

그는 한참 엇지할바를 모르고 우두머니 서잇섯다。